

리영희 비판과 반비판의 논리적 비판:*

‘북한맹·시장맹’ 논쟁을 중심으로

손석춘**

리영희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한 사람이다.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리영희에 대한 논문을 써왔지만, 언론학계에선 이제 비로소 논문이 나오고 있다. 리영희에 대한 평가는 ‘사상의 은사’ 또는 ‘의식화의 원흉’으로 평행선을 그어왔다. 본 논문은 상반된 평가들 사이에 소통을 위해, 양쪽의 논리를 비교하고 두 논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짚음으로써 리영희의 현재적 의미를 분석했다. 먼저 리영희가 ‘시장과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반비판론자들의 논리가 각각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fallacy of straw man)와 ‘논점 회피의 오류’(fallacy of question-begging)를 범하고 있음을 리영희의 글을 통해 밝혔다. 이어 ‘진실 추구의 고투’를 리영희가 언제나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다. 상찬과 매도로 평행선을 그려온 두 논리 사이에 소통의 필요성은 리영희가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서만 높이 평가해도 좋을 만큼 한국의 언론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데 있다. 언론이 정파주의에 점점 더 매몰되어가고 있기에 리영희가 강조한 ‘진실 추구의 고투’에 담긴 현재적 의미는 더 크고 깊다.

주제어: 리영희, 정파주의, 논점회피의 오류,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

1. 문제 제기

한국 언론의 ‘정파주의’¹⁾가 깊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계는 물론 학계에서 커지고 있다. 정파적 언론의 문제점은 언론계가 함께 기려야 할 언론인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기자협회가 2006년 제정한 ‘기자의 훈’ 상 첫 수상자인 리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가 전하는 언론인 리영희와 한겨레·경향신문에 나타난 리영희는 사뭇 대조적이다.

리영희는 그의 비판자들조차 인정하듯이 한국 언론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깊고 넓은 영향을 끼친 언론인이기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연세대학원신문, 1999년 12월9일자 10면). 언론계를 포함해 지식인 사회에서 리영희를 바라보는 스펙트럼은 ‘냉전-반공시대의 어둠’을 밝혀준 ‘사상의 은사’에서 ‘의식화의 원흉’까지 극에서 극이다. 그런 사회적 평가에 정파적 언론이 큰 몫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언론학계에서 리영희에 대한 평가는 “초보 수준”이다(최영목, 2012b). 학계에서 논란이 일어났지만 철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주도했다. 언론학자들이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글이 많았고, 학술지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진 못했다. 바로 그렇기에 『한국언론정보학보』가 리영희와 송건호, 장준하까지 기획논문으로 짚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²⁾ 더구나 리영희의 제자였던 언론학자 최영목과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20gil@hanmail.net)

1) 이 논문에서 정파주의의 개념은 “언론의 보도자세가 정치세력 또는 정파의 정책노선과 밀접하게 공조현상을 보이는 상태”로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 논의하는 “정당과 매체의 병행관계(Press-Party Parallelism)”를 의미한다(이재경, 2008).
2) 한국언론정보학회(2012), 『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 59호.

한겨레 기자 출신 연구자 이봉현이 내놓은 두 편의 논문은 언론학계에서 리영희를 연구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최영목(2012b)은 리영희의 저술과 인터뷰 분석을 통해 언론사상가이자 실천가의 면모를 잘 드러내 주었다. 최영목이 부각했듯이 리영희는 ‘현장 언론인’이자 투철한 계몽주의자로 살면서 사상의 자유, 실천으로서의 저널리즘 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한 한국사회의 ‘계몽적 지식인’이었다. 최영목은 맺음말에서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 한국 언론계, 한국 언론학계에 리영희 선생이 존재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영목 스스로 ‘연구의 한계’라고 밝혔듯이 리영희에 대한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시선과 논리를 분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못했다. 최영목은 “관련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매듭지었다. 이봉현(2012)은 리영희의 언론사상과 언론 현장을 함께 분석했지만 ‘뉴미디어 환경과 언론인 직업 규범’의 맥락에서 짚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 논문은 리영희의 언론사상과 실천을 정리한 최영목과 뉴미디어 시대의 직업 규범을 열쇳말로 분석한 이봉현의 논문을 디딤돌 삼아 두 논문이 집중하지 않은 문제를 학계의 공론장에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문제의식은 ‘기자의 혼’상 첫 수상자인 리영희에 대해서까지 극단적 평가를 서슴지 않은 한국 언론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이어져 있다. 평행선을 이루는 평가들에 소통을 시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이미 고인이 된 리영희를 두고서도 생존 때와 다름없이 언론계 안팎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조선일보가 리영희를 일러 ‘비겁한 지조’로 몰아세우는 대학교수의 칼럼을 게재하는 것이 그런 대표적 사례다.³⁾ 리영희를 둘러싼 학계와 언론계의 비판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은 그만큼 리영희의 글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지만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틈날 때 마다 제기하는 비판들⁴⁾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오류가 더는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엄밀한 학문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근본적으로 리영희는 정파적 언론 질서에서 어느 한쪽에서만 높이 평가하고 다른 쪽은 낮춰 평가해도 좋을 언론인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리영희는 갈수록 정파주의에 물들어가는 한국 언론이 저널리즘의 본령을 되찾는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언론인이다. 리영희를 대립되는 정파의 어느 한 편만 추앙하는 ‘사상의 은사’로 기리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게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리영희가

3) 서울대 사학과 교수 박지향은 ‘용기있는 변절과 비겁한 지조’ 제하의 칼럼(2011년3월24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 역시 학창 시절 사회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의 필독서였던 고 리영희 교수의 저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지조를 지키며 수행생활까지 마다하지 않은 그는 분명 용기 있는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리 교수가 작고하기 전에 한 가지만은 인정해주기를 바랐다. 즉 자신이 모택동의 중국에 대해 잘못된 허상을 퍼뜨려 많은 젊은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떠나고 말았다.”

4) 리영희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는 끊어지지 않는다. 고인의 부음 앞에서도 동아일보는 “주사과가 활개 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게 만들었다”고 썼다(2010년 12월6일 34면). 이 논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도 인터넷정론지를 자처하는 『데일리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그들이 말하는 ‘진보’는 리영희식 진보이다. 리영희가 지은 ‘전환시대의 논리’와 ‘8억 인과의 대화’라는 두 권의 책은 70년대와 80년대 운동권의 입문 필독서였다. 그는 80년대 말부터 ‘진보-보수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과 북한을 진보, 미국과 서방을 보수라고 끊임없이 암시했다. 이 사고방식이 2012년 현재에도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박성현, 이제 대한민국에도 보수주의가 탄생한다, 『데일리안』2012년10월24일). 문제는 곧 이 논문에서 밝히겠지만,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언론을 망치는 것도 언론인 자신이고 언론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언론인 자신의 이념과 생활의 자세”(리영희, 1977, 308쪽)라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 있다.

2. 기존 논의와 연구방법

리영희에 대한 학계와 언론계의 기존 연구와 논의는 논문 들머리에서 언급했듯이 ‘진보의 대부’나 ‘사상의 은사’에서 ‘의식화의 대부’나 ‘친북좌파의 수괴’까지 또렷하게 갈라져 있다.

먼저 리영희를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다. 철학자 박병기는 이미 1990년대에 쓴 논문 『리영희-휴머니즘으로서의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리영희 사상의 고갱이로 휴머니즘을 꼽고 그 사상이 ‘애국적 정의감’에서 출발해 이성 중심으로, 다시 이성에 대한 회의로 전개됐다고 분석했다(박병기, 1996). 이어 리영희의 삶과 사상을 평전 형식으로 짚은 책들이 출간됐다. 김만수(2003)의 『리영희 살아있는 신화』는 ‘실천하는 지식인’ 과 ‘상식을 실천한 평화주의자’로서 리영희를 정리하고 평가했다. 강준만(2004)의 『리영희,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는 리영희를 한국 현대사의 큰 줄거리를 읽을 수 있는 투명한 창으로 자리매김한다. 리영희가 이론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서부터 출발해 실천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삼웅(2010)의 『리영희 평전-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는 작고 직전까지 리영희를 인터뷰해 내놓은 평전이다. 김만수, 강만길, 김삼웅의 책이 ‘평전’에 기울어 있다면 젊은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필자로 참여한 『리영희 프리즘』(고병권 외, 2010)은 리영희의 팔순을 맞아 기획된 책으로, 세대별로 리영희를 보는 다양한 시선을 담았다.

이어 비평문으로 철학자 홍윤기(2011)의 『철학시민 그분, 리영희!』와 언론학자 최영목(2012a)의 『언론자유와 우상타파를 위한 불퇴전의 삶』이 있다. 홍윤기는 표제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났듯이 리영희의 삶이 ‘철학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한다. 최영목은 리영희 1주기를 맞아 리영희의 삶과 언론사상을 정리하고 현재적 의미를 분석했다. 최영목(2012b) 스스로 지적했듯이 “홍윤기와 최영목의 글도 리 선생 작고 후에 리 선생에 대한 ‘추모’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문과 저서, 비평문들이 리영희의 삶과 사상에 적극적인 긍정을 담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철학자 박병기가 리영희의 휴머니즘을 높이 평가할 때, 이미 문학평론가 이동하는 리영희의 저작이 문화혁명의 실상을 왜곡했다며 “영광의 제단에서 끌려 내려왔어야”한다고 비판했다(이동하, 1999, 170쪽). 이어 2006년부터 철학자 윤평중(2006)과 정치학자 조성환(2007), 김광동(2009)이 잇따라 리영희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윤평중의 『이성과 우상: 한국 현대사와 리영희』는 철학 교수가 본격적으로 리영희를 비판한 첫 논문이다. 윤평중은 리영희의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한국 사회를 북한맹(北韓盲)과 시장맹(市場盲)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조성환(2007)은 「우상과 괴자의 도그마와 우상」, 제하의 논문에서 리영희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글을 비롯해 현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결코 상찬의 대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동(2009)은 비평문 『리영희-한국 친북좌파 사상의 대부』에서 아예 더 나아가 리영희는 “한국의 모택동주의자로 출발”해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 대한 애절한 동경”을 했으며 그의 “변신”을 “월남자에서 친북자로, 모택동주의에서 김일성주의로”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와 논의를 짚어보았듯이 리영희에 대한 연구는 엄밀한 학문적 접근보다는

평전과 비평, 대중적 저서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그나마 철학자들의 논문이 공백을 메워왔다.⁵⁾

바로 그렇기에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은 소중하다. 최영목(2012b)은 『리영희의 ‘언론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리영희가 남긴 17권의 저서, 인터뷰와 대담자료, 언론보도, 증언, 체험적 사실들을 검토하고, 그가 학자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로, 언론학자라기 보다는 국제관계나 남북문제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으며, “평생 당대 수구 언론의 기회주의와 정치권력과의 유착, 후안무치한 상업주의, 사실과 진실에 대한 왜곡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봉현(2012)은 『뉴미디어 환경과 언론인 직업 규범의 변화: 리영희 언론정신을 통한 탐색연구』에서 언론인들로부터 ‘기자 정신’의 역할 모델로 인정받는 리영희의 언론사상을 실증적 글쓰기를 통한 실체적 진실 추구, 전문성에의 열정, 독자(민중)와의 상호교육으로 정리하고 디지털 시대에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열린 자세로 수용자와 밀접히 상호작용 함으로써 성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언론학계에서 리영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데 디딤돌이 될 두 논문엔 그러나 아쉬움도 짙게 남는다. 학계에서 리영희에게 제기된 비판적 논의들을 사실상 무시함으로써 리영희를 비판하는 쪽과의 소통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비판론자들의 논리와 그 논리를 뒷받침할 논거가 두루 약하기에 굳이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동하, 윤평중, 조성환, 김광동의 비판 가운데 적어도 윤평중의 그것은 논리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조성환과 김광동의 글과 달리 윤평중의 비판은 비교적 학술적으로 접근하며 나름대로 논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영희를 둘러싼 시각들 사이에 소통을 위해서는 학문적 비판에 학문적 대응이 필요하다. 리영희를 모택동주의자에서 김일성주의자로 변신했다는 식의 천박한 비평문과 윤평중의 비판 논문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리영희를 둘러싼 극단적 평가들 사이에 소통을 위해 양쪽의 논리를 가장 학문적으로 제시한 윤평중과 최영목의 논문을 ‘텍스트’로 서로 소통하지 못한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논문 모두 놓치고 있는 리영희의 언론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리영희를 둘러싼 학자들의 비판과 반비판의 논리가 얼마나 실제와 부합하는지 리영희의 저작과 대담에 근거해 짚었다. 직접 리영희의 언술을 통해 두 극단적 평가들을 분석할 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리영희 비판과 반비판의 논리

1) 리영희 비판의 논리

“그가 남긴 비체계적인 ‘인본적 사회주의’/ 우리 사회 시장맹·북한맹 만들어”. 중앙일보가 2006년 11월8일 3면 머리기사로 편집한 제목이다. 기사는 그해 9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리영희 저작집’ 출간기념회에서 50년 집필 생활의 은퇴를 공식 선언하는 모습의 리영희의 사진까지 큼직하게 담았다. 누가 보아도 은퇴를 공식 선언한 지성인을 겨냥한 자극적 편집이다.

5) 철학계에선 앞서 언급한 박병기가 1996년에 쓴 논문이후 윤평중의 비평적 논문, 그리고 이순웅(2008)이 ‘인본적 사회주의’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문제의 기사는 “서양 철학자 윤평중(한신대) 교수가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했다”로 시작한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학계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할 문제를 그 논문이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일간지가 종합면 머리로 큼직하게, 그것도 선정적인 제목으로 편집했기 때문이다. 집필 생활에 공개적으로 은퇴를 밝힌 전직 교수에 대한 한 교수의 비평적 논문을 갑자기 일간지 종합면 머릿기사로 올린 것은 분명 이례적이고 의도적이다. 리영희를 둘러싼 비판과 반비판이 학문의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있다. 리영희를 공격하는 형태의 신문 편집이 차분하게 학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⁶⁾

중앙일보 기사가 나간 직후 윤평중의 비평 논문 『이성과 이상—한국현대사와 리영희』를 실은 『비평』(2006년 겨울 재창간호)이 발간되었고 그 글은 윤평중이 펴낸 책(2008, 이하 인용은 이 책을 근거로 했다)에도 실렸다. 기사에선 윤평중이 리영희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묻어나지만 실제 논문을 읽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윤평중(2008)은 “가히 불꽃같은 삶이었다. 리영희의 삶은 실천적 지식인의 전범을 보여준다”며 그의 시대적 역할을 적극 인정했다. “냉전 반공주의의 음험한 본질과 은폐된 작동기제를 폭로하는 데 있어 한국 현대사에서 리영희처럼 투명한 이성을 나는 알지 못한다. 민주화 이후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반공규율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의 상당 부분은 리영희로부터 빚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감탄과 경외의 외중에서도” 윤평중은 리영희가 “소박한 인본적 사회주의의 이상”을 세운 걸 이제는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평중은 “리영희가 세운 사회주의라는 이상은 모택동의 중국에 대한 그의 숭앙에서 절정에 달한다”며 그 근거로 리영희가 직접 썼거나 편역한 중국 관련 책들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요컨대 리영희가 중국의 ‘문화혁명’을 미화해 독자를 오도했다는 비판이다. 윤평중은 학자이자 교수인 리영희가 “머리에 뿔 달린 중공 빨갱이식의 반공 구호가 횡행했던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말하지만, 또 “리영희가 편역한 중국 관련 책들은 빨갱이 구호의 선동성이나 피상성과 대조되는 논리적 체계를 갖추었지만”, 그 책들의 내용은 “모택동 치하의 중국을 미화한 채 형언하기 어려운 중국 인민의 비극과 고통을 은폐하는 성격의 글들이 모여 사회주의 중국의 실제인양 그려지는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윤평중은 또 리영희가 2005년 펴낸 『대화』에서 “30년 전의 문화대혁명 시기의 평가와, 30년 후의 실제적 검증 사이의 괴리는 비단 나 한 사람에게 한정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 거의 공통된 사실”이라고 ‘변명’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의 해명은 주관적으로 웅색하며, 객관적으로도 비학문적이다. 주관적 차원에서 지식인 리영희의 엄결성을 회의하게 하며, 객관적 지평에서 중국전문가 리영희의 학문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으로 윤평중은 자본주의의 이상을 부순 자리에 리영희가 세운 것은 사회주의의 이상이었다며 “소박하고 도식적인 리영희의 인본적 사회주의는 시장쟁과 북한쟁을 배태하면서 우리 시대를 계몽함과 동시에 미몽에 빠트렸다”고 평가했다.

6) 대학교수가 리영희를 비판하면 이를 신문이 크게 부각하는 보도 행태는 그 뒤에도 반복된다. 『중앙일보』보도 4개월 뒤 이번에는 정치학자 조성환의 글을 『동아일보』가 “리영희, 北에 주관—낭만적 기준 적용…우상이자 시대착오” 제하에 보도한 게 그것이다(동아일보 2007년 3월1일자).

2) 리영희 비판의 반비판 논리

윤평중의 리영희 비판에 대해 곧장 반비판이 나왔다. 언론학자 강준만과 철학자 홍윤기가 한겨레에 반비판의 글을 실었다.⁷⁾

“리영희 비판에 되묻는다” 제하의 기고문에서 강준만은 “최근 중앙일보는 리영희가 남긴 ‘비체계적 인 인본적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를 ‘시장 맹(盲)·북한 맹(盲)’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주장을 편 글을 소개했을 뿐이며 공과를 공정하게 소개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편집 효과상 두드러지는 건 그 메시지다. 여기에 리영희의 정신적 제자였음을 자처한 내부 논객의 비슷한 비판까지 가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과의 관계라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안고 있는 중앙일보는 그래도 그간 나름의 ‘자본의 합리성’이라는 미덕을 보여왔다. 그랬던 중앙일보가 분위기에 휩쓸려 리영희마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건가?” 되물었다. 강준만은 “그래도 중앙일보는 말이 통할 것 같아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리영희 탐구를 제대로 하기 바란다. 전 사원이 『대화』를 읽고 독서 토론회를 해보길 권한다. 바로 이 책에 국난 극복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강준만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리영희가 “교조주의적 도그마에 강한 혐오감을 드러냈다”는 데 있다. 가령 리영희는 『대화』에서 1980년대 후반 운동권을 풍미했던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을 분열주의적 공쟁(空爭)으로 비판했고, 한국 사회의 분열에 환멸을 토로하면서 이런 달갑지 않은 요소가 ‘민족적 유전자’를 형성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품을 때가 있다고 밝혔다. 강준만에 따르면 리영희는 모든 비극의 원인을 외세 탓으로 돌리는 ‘민족적 면책론’도 거부했고, 뼈아픈 자기비판과 민족적 각성을 요구했으며, 나라를 망친 것은 지도층이나 지배계층이고 나라를 염려하고 지킨 것은 대중이나 민중이라는 관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언론학자 강준만의 반비판 초점이 중앙일보의 공격적 편집이었다면, 철학자 홍윤기의 비판은 윤평중의 논문에 집중했다. “당신의 ‘이성’은 허수아비를 향해 있다” 제하의 기고문에서 홍윤기는 “헛다리 비판을 하느니 차라리 인신공격을”하라고 주문했다. 홍윤기는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리영희 선생의 ‘인본적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시장과 북한을 바로 알지도 못할 정도로 맹(盲)한 ‘인본적 사회주의 국가’”라고 꼬집은 뒤 윤평중의 “글을 직접 보니 이 보도가 오보는 아니었고, 또 정황은 더 심각”했다고 비판했다.⁸⁾

7) 리영희를 둘러싼 비판과 반비판이 신문을 통해 이뤄지는 모습은 그 자체가 탐구해볼만한 언론현상이다. 앞서 소개한 중앙일보 기사는 맨 끝에 “리 교수는 올 9월 50년 집필 생활의 마감을 선언했다. 2000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글을 쓰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를 통해 세상 보는 눈을 배웠던 후학들이 대답해야 할 차례다”라고 썼다. 한겨레는 8일 만인 2006년 11월16일자에 윤평중을 비판하는 글을 실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리영희 선생이 한국사회를 망쳐놨다? 지난 8일 중앙일보는 ‘그가 남긴 비체계적인 인본적 사회주의, 우리 사회 시장맹·북한맹 만들어’라는 큰 제목을 단 ‘한신대 윤평중 교수의 (리영희) 비판’을 3면 머릿기사로 실었다. … 기사는 ‘진보 지식인 대부 리영희 교수, 그의 공과를 되묻는다’면서도 명백히 ‘과’쪽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진보진영’ 전체를 겨냥한 듯한 그 기사에서 ‘공’은 ‘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장식물처럼 몇 줄 붙었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아 일반 독자들이 금방 확인해볼 수도 없는 그 글을 연합뉴스에 이어 중앙 등 몇개 신문들이 비슷한 톤으로 다뤘고, 일부 신문은 그 뒤 칼럼까지 썼다. 기사들, 그리고 그 모본인 윤평중 교수의 글은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강준만 교수(전북대·언론학)와 홍윤기 교수(동국대·철학)의 ‘리영희 비판에 대한 비판’을 실는다.”

8) 홍윤기는 그 이유로 윤평중의 다음과 같은 언술을 꼽았다. “리영희의 사회주의적 정황은 직관적이며 그만큼 파편적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정합성을 갖춘 논의 자체가 부재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우상을 부순 자리에 리영희가 세운 것은 바로 사회주의의 우상이었다.” “리영희의 인본적 사회주의와 유가적 도덕주의는 근대적

홍윤기는 “리영희 선생이 어느 글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서 ‘사상적’ 입장이거나 세웠던가” 묻고 “선생은 사회주의의 도덕적이고도 인간주의적인 기본 가치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이상화시키겠다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나 목표와 연결된 일”이었는지 또 “시장체제가 생활에 안겨주는 각종 고통을 리영희 선생은 집요하게 ‘비판’하고 ‘고발’하기는 했지만 과연 시장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안’의 탐구를 자신의 ‘학문적 주제’로 삼았던 적”이 있었는지 반문했다. 이어 “(윤평중이) 비판하는 리영희씨는 우리가 이는 리영희 선생과 동명이인”인 것 같으며 “그런 헛다리 비판을 우리 철학 교수들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래도 철학을 업으로 하는 교수들의 얼치기 사회과학부터 깨져야”한다면서 “이렇게 한없이 오류로 가득찬 A4 11쪽짜리의 조야한 잡문을 학교 연구비까지 지원받아가며 쓸 일이 아니라 차라리 리영희 선생을 속편하게 인신공격 하시”라고 권했다. “그것이 철학교수의 비판이라는 것이 얼치기라는 직업상의 기밀을 은폐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동류의식이 발동”한다며 “학문적 연민의 심정”까지 밝혔다.

4. 비판과 반비판의 비판

1) 비판과 반비판의 논리적 오류

앞서 살펴본 비판과 반비판은 비판 논문이 소개되고 반비판의 글이 발표된 신문 지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었지만 이성적 논쟁이라기보다는 ‘공격과 반격’의 틀에 갇혀있다. 강준만의 반비판은 비교적 논리적이지만 중앙일보에 전 사원이 『대화』를 읽고 독서 토론회를 해보길 권함으로써 논리적 설득력을 잃었다. 강준만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신문사 ‘전 사원’에게 특정 책을 읽고 독서 토론회를 하라는 말을 진지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뿐더러 다분히 감정적 언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⁹⁾

철학자 홍윤기의 반비판도 지나치게 감정적이어서 오히려 반론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예컨대 “한없이 오류로 가득 찬 A4 11쪽짜리의 조야한 잡문을 학교 연구비까지 지원받아가며 쓸 일이 아니라 차라리 리영희 선생을 속편하게 인신공격하라”는 비판은 그 자신부터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더러 윤평중의 논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홍윤기가 “윤평중의 논문을 읽어보니 중앙일보의 소개 기사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힌 대목도 신문의 공격적 보도가 그에게 선입견을 주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일보의

시장의 입체성과 역동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시장맹(市場盲)으로 귀결됨으로써 자유인의 존재 근거를 부인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조야(粗野)하고 도식적인 그의 인본적 사회주의는 시장맹과 북한맹(北韓盲)을 배태(胚胎)하면서 우리 시대를 계몽함과 동시에 미몽에 빠뜨렸다. 리영희는 결국 냉전 반공주의가 압살한 불행한 시대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9) 물론, 강준만(2004)은 윤평중 논문 이전에 이미 이동하(1999)가 리영희를 비판할 때 반비판의 글을 발표했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 냈기에 짧은 신문 기고문에서는 체계적인 반론을 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리영희를 다룬 강준만의 저서에서 문화대혁명을 다룬 대목도 리영희의 시각을 정면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강준만, 2004, 307~308쪽).

다분히 공격적 편집과 비교하면 윤평중의 논문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¹⁰⁾

따라서 비판과 반비판 사이에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감정적 접근을 최대한 배제하고 논리적 접근이 요청된다. 윤평중으로 대표되는 리영희 비판론자들의 논문과 비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논리는 다음 세 가지로 추출할 수 있다.

논리 ① : 중국의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을 지나치게 미화해 소개함으로써 그 글을 읽은 당대의 젊은 독자들에게 현실을 잘못 인식케 했다.

논리 ② : 그럼에도 문화대혁명을 잘 못 판단한 과오에 대해 학자와 지성인으로서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

논리 ③ : 앞의 두 논리 ①과 ②때문에 리영희는 한국 사회의 ‘시장맹’과 ‘북한맹’에 책임이 크다.

그런데 윤평중을 비판한 학자들의 논리는 리영희 비판의 출발점인 논리 ①을 비켜감으로써 ‘논점회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리영희를 주제로 언론학계에서 사실상 첫 학술논문을 쓴 최영목(2012b)도 “윤평중과 김광동은 비판은 리선생이 평생 주창해 온 인간중심주의와 자유주의, 부당한 권력의 작용에 대한 비판, 독단과 도그마에 대한 경계와 성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애한 세계관과 프레임(친미-반공-시장자본주의)을 가지고 리선생을 재단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비판과 반비판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다. 리영희를 비판한 윤평중에 대해 리영희 쪽의 ‘대응’이 감정적이거나 문제의 핵심을 놓침으로 해서 논쟁에 이익을 보는 쪽은 리영희 비판론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영희 비판이 옳았다고 확신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들의 리영희 비판 논리가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몇몇 신문들을 통해 틈날 때마다 재생산되고 있는 까닭도 기실 여기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옳은가. 다름아닌 리영희가 제시한 ‘기자 정신’ 또는 “언론인의 이념과 생활자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 비판의 근거: 진실 추구의 고투

(1) 리영희의 진실 추구

최영목(2012b)은 “1950년대 후반 기자가 된 후 리선생의 삶을 이끈 근본이념은 실존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었다”고 분석했다. 물론, 리영희는 실존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의 저작 활동과 저작에 담긴 고갱이를 반복해서 밝힌 게 있다. ‘진실 추구’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리영희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주 텍스트’로 삼은 『이상과 이성』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리영희, 1977/2006, 머리말).

10) 홍윤기는 그 뒤 리영희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에서 그를 “대한민국 주권자인 시민의 시민능력 진화의 모델”이라고 격찬하면서도 윤평중의 리영희 비판은 언급하지 않았다(홍윤기, 2011, 354쪽).

진실에 대한 강조는 그로부터 30년이 더 지나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제1회 기자의 혼’상을 수상했을 때도 나타난다. 리영희는 수상 소감에서 “진실만이 내가 추구하고 숭배하는 가치”라고 단언했다(『기자협회보』2006년 5월 24일).

이봉현(2012)도 리영희는 “거의 모든 것을 회의하고 질문하고, 허위와 가식으로 가려진 진실 된 가치를 밝혀내어, 진실 이외의 그 무엇에 대해서도 충성을 거부하는 종교와 같은 신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봉현은 “(리영희가) 대학에서 각각 두 번 해직됐고 세 번 재판을 받은 것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지식인의 책무를 이행하려는 몸부림”이었다며, 전문적인 언론인이자 학자로서 리영희가 글을 써 온 원칙은 방법 측면에서 “방대한 자료의 섭렵을 요구”하는 “실증적인 글쓰기”라고 강조했다.¹¹⁾ 리영희는 앉아서 받는 자료나 발표하는 자료로 기사를 쓰지 않았으며, 200자 원고지 9매를 쓰기 위해 예닐곱 권의 책을 뒤적이는 것은 보통이고, 칼럼 한 꼭지를 쓰기 위해 미국 상원 의회록 1,200 쪽을 읽고 겨우 한 두가지 통계자료를 찾아 쓸 때도 있었다(안철홍, 1994, 246쪽). 리영희는 “다른 필자들이 적당한 선에서 유아무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글을 쓰는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의 규명은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김만수 2003, 66쪽).

문제는 리영희에 대한 상찬이 지나치게 흐르면서 그런 분석이 거꾸로 발목을 잡는 데 있다. 당장 문화혁명에 대한 리영희의 글쓰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옳은가라는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러는 중국의 문화혁명과 관련한 리영희 자신의 글과 번역들은 그의 언론 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리영희 자신이 외신부장(국제부장) 출신으로 중국 문제를 천착했고, 그 연장선에서 『전환시대의 논리』를 펴냈다. 중국정치에 대한 리영희의 탐색도 한국 언론이 중국 보도와 미국 보도를 똑바로 해야 한다는 단순한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었다. 리영희 자신이 “중공의 문화혁명을 남한사회의 독자들에게 전할 때 자본주의사회의 병든 생활방식과 존재양식에 대해서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리영희, 2005, 433~435쪽). 전대일의 분신을 부른 친민적 자본주의 체제와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조작해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8명을 전격 처형한 독재 체제 아래서 새로운 사회의 상으로서 중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려는 리영희의 글쓰기는 사유의 지평을 크게 넓혀주었다.

리영희의 의도는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벗어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나타난다. ‘당산 시민을 위한 애도사’(한겨레 1988년11월6일자)가 그것이다. 리영희는 1976년에 겪은 중국 당산 대지진과 77년 미국 뉴욕시의 12시간 정전 사태를 비교하며 “부자나라의 시민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강간했다. 세계에서 어쩌면 제일 가난한 사회의 당산 시민들은 자기 것을 버리면서 이웃을 도왔다”고 썼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88년 현재 리영희는 “중국은 지금 미국식의 물질적 풍요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민들은 코카콜라에 입맛을 들였고, 지식인들은 보다 절묘한 노동자 관리를 위해서 MIT대학 경영학 교과서를 들고 밤을 새운다. 자본원리와 물질주의의 신이 도덕주의와 평등사

11) 리영희는 1996년 인터뷰에서 “나는 실증론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통계와 증거를 가지고 알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나는 가치판단을 안 해요. 자료를 찾으면 90%는 썼다고 봐야지요. 자료를 구하고 정리해서 분류해서 보존하는 일이 힘들었어요. 60~70년대는 외국 출입이 제한되어 국내 대사관으로 주일회 순례를 다녔어요. 자료로 30년을 하니깐 이제 지쳤어요”라고 말했다(오숙희 1996).

상을 추방했다. 지금 중국사회는 타락과 부패, 사기와 횡령, 범죄와 인간소외의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썼다. 리영희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예찬만 하는 언론들에 맞서 사유의 지평을 넓히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리영희가 마오쩌둥과 문화혁명을 과도하게 평가한 대목이 저작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대표적 보기는 “모택동이 사회주의 혁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마르크스·레닌·스탈린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위대하다”라거나 문화혁명에 대해 “모택동이 마르크스·레닌·스탈린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적 혁명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사상)혁명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 실제로 인간의 관념을 혁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 … 소위 ‘인간성’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적으로 고정, 불가변하다고 생각해온 관념과 신앙에 대한 거대한 도전인 까닭에, 세상은 지금 다만 놀라움으로 중국을 바라볼 뿐”(리영희, 1977/2006, 152쪽)이라고 쓴 대목이다.

마오쩌둥의 사상은 물론 그의 인격 자체를 회화화하던 1970년대에 마오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글은 진실 추구의 열정과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국식 자본주의만이 한국의 나아갈 길이라고 여겼던 친미사대주의적 사회에서 그와 다른 사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글은 반공독재 체제에서 살고 있던 동시대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었다.

다만, 그것이 의미 있고 용기 있는 진실 추구였다는 정당한 평가와 함께 리영희가 마오쩌둥을 “마르크스·레닌·스탈린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위대하다”고 소개한 사실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바라볼 때가 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마오쩌둥과 문화혁명에 대한 리영희의 글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대목이 적잖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판론의 논점을 무작정 회피하거나 가치 없다고 논외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리영희의 중국 사회와 문화대혁명에 대한 서술이 다른 글들과 달리 ‘실증론적 글쓰기’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리영희 비판론자들의 논리 ①(중국의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을 지나치게 미화해 소개함으로써 그 글을 읽은 당대의 젊은 독자들에게 현실을 잘못 인식케 했다)은 정당하다. 리영희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하기 위해 해직과 투옥을 감수하며 자신이 탐색한 진실을 동시대인들과 나누었다는 사실을 평가하고 또 사회적 성취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과, 그것이 전혀 과오가 없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리영희의 위상을 더없이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것을 부정하거나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올바른 대응도 아니다.

(2) 고투의 과정으로서 진실

앞서 리영희가 사회주의라면 무조건 적대시하던 냉전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새로운 사회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준 리영희가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사실을 분석했다. 문제의 핵심은 비판론자들의 논리 ①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리영희에 대한 ‘상찬’을 거두거나 ‘시장-북한맹’으로 비판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왜 그런가? 리영희는 언론인의 자세로 그가 늘 강조한 ‘진실 추구의 고투’를 결코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영희는 1991년 1월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정치연구회 월례토론회에서 『사회주의의 실패를 보는 한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나는 지난 반세기의 냉전시대 지식인이 겪은 의미로 ‘구조결정론’에 빠졌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학적 용어로서 ‘계급’ 또는 계급관계

적 구속성의 구조라는 점에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지식인의 사유와 실천적 표현이 구조화되었던 현실을 말한다. 현실의 진행을 고정된 법칙과 그것에서 연역한 사유의 틀로 해석하는 관습에 젖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자기비판이 크다. 소련, 동유럽사태의 변화 앞에서 혼란에 빠진 나 자신이나 여러분 대동소이하리라 생각한다.”(리영희, 1991)¹²⁾

리영희는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 발표와 관련해 진보진영에서 비판이 일어났을 때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중앙일보』 기자가 1991년 1월의 학술대회에서 ‘사회주의 실패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간과하는데 있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새로운 변신의 노력인가, 지난 논리의 수정을 뜻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사회주의라는 구조만 갖추면 사회주의적 도덕인간을 만든다는 구조결정론에 대한 반성이었다. 교조적 결정론에 대한 회의, 김일성주의를 과신하는 학생세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허황된 구조결정론과 사회주의 인간상에 대한 비판이었다. 나치가 꿈꾸었던 이상적 아리안족이나 모택동의 문화혁명, 김일성의 인간형이 모두 인간의 본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답했다(중앙일보, 1993년 2월 20일자).

리영희는 명백하게 “김일성주의를 과신하는 학생세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밝혔고 “모택동의 문화혁명”도 꼭 집어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구조 결정론’에 대한 반성을 토로했다.

따라서 윤흥중을 비롯한 리영희 비판학자들의 논리 ①과 달리 ②와 ③은 흥윤기가 비판한 ‘허수아비의 오류’가 적중하고 있다. 물론, 비판론자들은 리영희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리영희가 어디까지 어떻게 과오를 인정했어야 옳은지 오히려 묻고 싶다. 비판론자들은 리영희가 중앙일보처럼 편향된 매체와도 기꺼이 인터뷰에 응하며 이미 “김일성주의를 과신하는 학생세력”과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날 세워 비판하고 “반성”이란 표현까지 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리영희가 중국 문화혁명을 잘못 판단한 과오에 대해 학자와 지성인으로서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리영희는 한국 사회의 ‘시장맹’과 ‘북한맹’에 책임이 크다는 논리는 사실과 어긋난다.

같은 맥락에서 비판론자들의 논리 ①도 다시 짚을 필요가 있다. 리영희의 진실을 추구하는 고투가 즐기치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굳이 리영희 언론사상을 ‘진실’이라고 하지 않고 ‘진실 추구의 고투’라고 한 이유도 여기 있다. 리영희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을 고통스럽다고 명도박야 말했다고 실제로 그 길을 걸었다. 리영희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상황, 한마디로 압축하면 중국을 ‘적성국가’로만 생각하고 박정희 독재를 찬양하는 대학교수들이 줄을 이어 나오던 바로 그 시점에, 동시대인들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다. 당시 그는 해직과 투옥의 고투를 겪으며 자신이 믿었던 진실을 증언했다. 그의 저작은 유신독재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 민주화운동에 적잖은 사상적 자극을 주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문화대혁명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1989년 동유럽공산주의 체제의 몰락과 뒤이은 소련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리영희는 기꺼이 과오를 인정했다. 중국 문화대혁명과 김일성주의를 비판함으로써 그의 저작에 영향을 받은 진보운동 일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건넸다. 그것은 또 다른 진실 추구의 고투였다. 이봉현(2012)이 리영희의 ‘실체적 진실’을 디지털 시대에

12) 당시 강연 내용을 리영희가 정리해서 기고한 글이 『신동아』(1991년 3월호)에 게재됐다.

미덕으로 분석한 것은 돋보이는 분석이지만, ‘실체적 진실’보다는 끝없이 진실을 찾아가는 고투로 이해하는 것이 뉴미디어시대를 전망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¹³⁾ 굳이 철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실체적 진실’보다는 ‘과정적 진실’이다. 미국 언론계와 학계에서도 저널리즘적 진실을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Kovach, B., & Rosenstiel, T. 2001). 꾸준히 보도해나가는 과정에서 앞서의 잘못을 바로잡아 가는 취재 과정을 좀 더 길게 보면, 중국 혁명에 대해 리영희가 추구해나간 진실의 과정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 언론계와 학계가 제시한 과정으로서의 진실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리영희는 그 과정에서 권력이나 상식이 틀 지운 세계관을 넘어서려는 고투를 씬 없이 전개해간 언론인이었다.

진실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당대의 다른 지식인들과 비교하더라도 고투의 발자국을 또렷하게 남긴 리영희는 한국현대사 전공인 역사학자 서중석과의 인터뷰에서 끝없이 공부해 나가는 자세를 밝혔다(리영희·서중석, 1991, 97쪽). “나는 지금 거대한 역사적 변혁 앞에서 지적, 사상적 그리고 인간적 겸허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심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관적 오류나 지적 한계가 객관적 검증으로 밝혀질 때, 부정된 부분을 ‘사상적 일관성’이라는 허위의식으로 고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¹⁴⁾

그럼에도 대학에서 문학, 철학, 정치학, 사학을 가르치는 학자들까지 사실과 달리 리영희를 비난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자가 다른 학자를 비판할 때는 그 학자가 쓴 글들을 충분히 읽어야 하는 것은 학문적 논쟁의 전제이자 기본이기 때문이다.

윤평중과 그 이후 정치학자, 사학자들이 정파적 언론사들과 더불어 줄기차게 거론하는 이른바 ‘북한맹’과 ‘시장맹’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시대적 진실인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북한맹과 시장맹이라 할 때, 그 ‘맹목’의 정체가 무엇인가부터 냉철하게 분석해야 옳기 때문이다.

무릇 사회과학에서 개념과 현실은 최대한 부합해야 유용하다. 한국 사회의 현실은 리영희가 지적 활동을 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줄곧 ‘시장 맹신주의’와 ‘맹목적 대북 적대주의’가 주류다.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등장한 경험이 과연 있는지는 얼마든지 실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음이다. 흔히 노무현 정부를 리영희와 연결해 거론하는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많지만, 참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대북송금 특검에 나섰다.

물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판단에선 시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시장을 부정하거나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그 두 가지 요건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과연 실체로서 얼마나 존재하는지, 또 그들이 한국사회의 전개 방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강단의 학자들까지 이데올로기 공세에 ‘전위’로 나서는지 의문이지만—에 있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시장을 맹신하고 북한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견고한 세력을 형성한 데 있다.

13) 리영희의 진실관은 학문적으로 정제되어 발표되진 못했다. 하지만 그의 진실을 향한 고투와 그 과정에서 자기 견해를 공개적으로 수정하는 자세는 1997년부터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들이 결성한 ‘저널리즘을 염려하는 언론인 위원회(CCJ: Committee of Concerned Journalists)’가 3년여에 걸친 집단 토론을 거쳐 내놓은 결론과 유사하다. 과정으로서의 진실이 그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리영희 저널리즘의 21세기 현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Kovach & Rosenstiel, 2007, pp 35~49).

14) 기실 리영희(1974)는 첫 저서인 『전환시대의 논리』 머리말에서 이미 “이 속에 수록된 몇 편의 글은 발표될 때에도 빈약한 한 사회과학도의 가설이었던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발표된 때부터 531년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역시 가설”이라며 진실을 추구하는 연구자의 자세를 밝혔다.

그럼에도 착시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한국 언론의 문제가 깔려 있다. 지금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 정권’으로 몰아치길 서슴지 않는 언론사들에 대해 조성환, 박지향은 논외로 하더라도 왜 “극단의 시대에 중심잡기”를 자신의 소명으로 삼은 철학자 윤평중이 걱정된 비판-리영희를 비판할 때의 ‘날카로움’은 차치하고라도-조차 들이대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에 윤평중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리영희는 앞서 소개한 성찰들과 함께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해갔다. 예컨대 리영희는 사회학자 김동춘과의 대답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민족자주적 통일에의 길에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체제파’신문들이 군부나 극우집단보다도 장애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리영희·김동춘 대담, 1995).

리영희는 『기자협회보』와 가진 인터뷰(2004년8월19일자)에서도 “1960년대 말 조선일보 외교부 출입기자 시절,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는 달리 각종 외신과 자료를 수합해 정확한 팩트에 근거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보도를 한 힘의 원천과 신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간명하게 “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자는 진실을 추구하는 직업”이라고 단언한 뒤 “진정한 언론이라는 것은 거짓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영희는 “진실을 찾아내 우리생활 환경전반을 왜곡되게 의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자는 기자”라며 “강자가 약자를 거짓으로 다스리는 그 행위를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진실을 추구하는 오로지 한 일념으로 어떠한 고난도 이겨”냈다고 회고한 리영희는 “진실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것”으로 “진실은 나의 신념이요, 삶”이라고 거듭 밝혔다.

리영희가 지적했듯이 “언론을 망치는 것도 언론인 자신이고 언론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언론인 자신의 이념과 생활의 자세”라면, 진실 추구의 고투는 정파주의 틀에 갇힌 한국 언론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과제라는 게 본 논문의 제언이다.

5. 맺음말: 리영희의 언론사적 의미

지금까지 리영희를 둘러싸고 언론계와 학계에서 평행선을 이루는 평가들 사이에 소통을 위해 양쪽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철학자 윤평중과 언론학자 최영목의 논문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거나 놓치고 있는 지점을 찾아 리영희의 저작에 근거해 분석했다.

리영희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의 논리가 각각 범하고 있는 ‘허수아비의 오류’와 ‘논점 회피의 오류’를 리영희가 제기하고 실천한 ‘언론인의 자세’인 ‘진실 추구의 고투’라는 지평에서 짚어 보았다. 사회주의라면 그것이 공산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무조건 적대시하고 심지어 고문과 처형을 서슴지 않았으며, 중국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중공’으로 표기하던 군사독재 시대에 리영희가 해직과 투옥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파악한 진실을 동시대인과 나누어 새로운 사회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사실, 그 과정에서 리영희가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지만 그것을 시정하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실 추구’의 틀로 정리했다.

정파주의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한국 저널리즘의 현실, 더구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권력과 자본의 논리를 좇아 쏟아내는 보도와 논평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리영희가 평생 걸어갔던 ‘진실 추구의 고투’는 한국 언론계는 물론, 언론학계를 비롯한 지식인 사회가 소중히 삼아야 할 가치다.

진실은 그냥 편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리영희는 『우상과 이성』을 비롯한 저작 활동에서만 아니라 온 삶으로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리영희의 ‘진실을 추구하는 고투’는 오늘날 ‘의사(quasi)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있는 언론계에서 모든 언론인들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가치이자 덕목이라는 점에 그의 언론사적 의미가 있다.

아울러 ‘북한맹’과 ‘시장맹’이라는 ‘기호’가 보여주듯이 학계와 언론계에서 집요하게 자행되는 리영희 비판의 오류와 정치적 의도가 더는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학문적 감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리영희를 대립되는 정파의 어느 한 편만이 추앙하는 ‘사상의 은사’로 기리는 데서 더 나아가, 정파를 넘어 모든 언론인들에게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성찰케 하는 ‘기자의 거울’로 읽어야 한다.

물론, 이 논문의 한계는 또렷하다. 리영희 사상의 전체적 면모를 드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가기도 못했다. 다만 소모적으로 평행선을 이루는 ‘리영희 평가’는 적어도 지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 사회학자의 리영희 평가와 리영희 자신의 말을 적시한다.

“리영희를 ‘사상의 은사’, ‘생각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훌륭한 ‘정보’나 ‘견해’를 들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스승이란 우리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우리를 각성케 하는 모든 존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이다.”(고병권 외, 2010, 16쪽).

“나는 지금 거대한 역사적 변혁 앞에서 지적 갈등을 겪고 있고, 지적 오류와 단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리영희-장명수 대담, 1991).

Ⅰ 참고문헌

- 강준만 (2004). 『한국현대사의 길잡이 리영희』. 서울: 개마고원.
- 고병권 외(2010). 『리영희 프리즘』. 서울: 세계철.
- 김만수 (2003). 『리영희 살아있는 신화』. 서울: 나남.
- 김삼웅 (2010). 『리영희 평전-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 서울: 책보세.
- 리영희 (1974). 『전환시대의 논리』. 서울: 창작과비평사.
- 리영희 (1977/2006). 『우상과 이성』. 서울: 한길사.
- 리영희 (1990). 『自由人, 자유인』. 서울: 범우사.
- 리영희 (1991) 사회주의의 실패를 보는 한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 월간 『신동아』 1991년3월호
- 리영희 (1994).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전환시대의 논리 그 후』. 서울: 두레.
- 리영희 (2005). 『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서울: 한길사.
- 리영희·김동춘 (1995). 『나의 학문, 나의 인생 : 리영희-냉전이데올로기의 우상에 맞선 이성의 필봉』 『역사비평』 계간 29호(1995년 여름호). 서울: 역사비평사
- 리영희·서중석 (1991). 『버리지 못하는 이기주의와 버릴 수 없는 사회주의적 휴머니즘』 『사회평론』 1991년 6월호
- 리영희·장명수대담 (1991) 사회주의는 끝난 것인가? 자본주의는 이긴 것인가? 『한국일보』 1991년 6월25일.
- 박병기 (1996). 리영희-휴머니즘으로서의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7권2호 11~37쪽.
- 안철홍 (1994). 화제의 작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펴낸 리영희 교수. 월간 『말』 1994년9월호
- 오숙희 (1996). 따스한 자연인 리영희, 『참여사회』 1996년 3/4월호.
- 이동하 (1999).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 서울:문이당

- 이봉현 (2012). 뉴미디어 환경과 언론인 직업 규범의 변화:리영희 언론정신을 통한 탐색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9호. 31~49쪽.
- 이순웅 (2008). 리영희의 인간주의적 사회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19권3호. 193~230쪽.
- 이재경 (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커뮤니케이션이론』4권2호, 48~72쪽
- 윤평중 (2006). 이성과 이상: 한국 현대사와 리영희. 『비평』2006년 겨울호.
- 윤평중 (2008). 『극단의 시대에 중심잡기』, 서울:생각의 나무.
- 조성환 (2007). 이상파괴자의 도그마와 이상. 『시대정신』2007년 봄호.
- 최영목 (2012a). 언론자유와 이상타파를 위한 불퇴전의 삶. 『창작과 비평』155호.
- 최영목 (2012b). 리영희의 ‘언론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59호. 7~30쪽.
- 홍윤기 (2011). 철학시민 그분, 리영희!-리영희 선생의 삶과 사상에서 ‘리영희 철학’을 찾는다. 『황해문화』70호(2011년 봄). 327~354쪽.
- Kovach,B/Rosenstiel,T.(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Three Rivers Press.

(투고일자: 2012. 11. 30, 수정일자: 2013. 01. 156, 게재확정일자: 2013. 01. 23)

ABSTRACT

A Logical Critique of Criticism and Anticriticism of Lee Yeung-Hi

Seok-Choon Shon*

Lee Yeung-Hi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journalist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Nevertheless, the judgement about him has been parallelized by opposite sides. He is called ‘the Master of ideology’, while the other calls him ‘the culprit of theorization’. This thesis deduced the contemporary meaning of person Lee Yeung-Hi in order to promote communication for both sides. I compared their logical arguments and pointed out the error they missed. Also, I clarified that the criticism and anticriticism for Lee Young-Hi in the fields of both journalism and academia have fallacies, such as the fallacy of straw man, and the fallacy of question-begging. I criticized their arguments through the view of ‘struggling to seek truth’, which is the core value of Lee Yeung-Hi’s thought. The necessity of communication between advocators and it’s critics is due to the condition of Korean Journalism. Korean Journalism does not have much space to accept Lee Young-Hi in only one side. Paradoxically,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truth that Journalist Lee Young-Hi had sought is profound and deep because of the condition where Korean Journalism is being dominated by political parallelism.

Keywords: Lee Yeung-Hi, truth, fallacy of straw man, fallacy of question-begging, political parallelism.

*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Konkuk University